

기고



김 안 기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소원이 담긴 정치후원금

구례의 유명 관광지 '사성암'에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소원바위가 있다. 그 바위 틈새에는 많은 동전들이 끼워져 있다. 그 동전 하나하나에는 가족의 건강, 취업 또는 사업의 성공, 결혼 등 제각각의 소원이 담겨져 있다. 어떻게 저 높은 곳에 끼웠을까 싶은 동전들도 있다. 구례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곳곳

에는 각종 바위, 연못 등 소원을 비는 곳이 많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며 많은 사람들은 동전을 던진다. 누군가는 재미로, 누군가는 절실하게 동전에 담긴 다양한 소원, 어쩌면 이 모든 걸 보다 확실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다. 정치후원금에는 '기탁금'과 '후원금'이 있다. '기탁금'은 정치자금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품을 말하고, '후원금'은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품을 말한다. 이처럼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이유는 다수의 목소리를 왜곡하는 특정 소수와의 유착을 막기 위함이다. 즉, 정치후원금은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정치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은 특정인이나 법인·단체 등의 불법 정치자금을 차단하고 다수 국민에 의한 소액기부로 정치자금을 조달하여 정당·정치인에게 토론, 정책개발, 대안연구 등 정치활동에 필요한 막대한 정치자금에 대한 부담

을 없애주고 투명한 정치자금을 통해 정당·정치인이 소신과 책임있는 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있는 제도이다. '정치자금법'에는 외국인,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집단의 부당한 정치 영향력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금은 정치의 도구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소액다수의 후원이 중요한 이유이다. 또한, 다수 국민들의 후원금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책과 정치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정치후원금을 통해 깨끗

하고 투명한 정치문화가 조성되면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정치인들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의 다양한 소원들은 건전한 민주정치를 통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서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전화 결제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나 '페이코'와 같은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해 쉽게 가능하고,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연말정산 시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원을 빌며 동전을 던지듯, 적은 액수라도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우리의 소원연못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정치후원금을 기부해보는 건 어떨까.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조기발견 근절위한 신고절실

지난 11월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하고 있으며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하여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법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변에 대한 관심을 통해 아동학대 행위는 조기에 발견하여 학대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한 시기이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

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학대행위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신체학대, 그리고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는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 하는 정서학대가 있다. 또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하는 성 학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인 유기를 포함 방임이 있다. 아동학대는 전별을 받아야 할 중대범죄이다.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

우 등은 반드시 신고하기를 당부한다. 아동의 이름, 주소,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주소 등을 전화로 국번없이 112, 관할 지역아동전문기관으로 방문 신고해도 되는데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되며,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철저한 대응 및 지원으로 건전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시민들은 철저하게 아동학대범죄 등에 대해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 진병진/여수경찰서봉산파출소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Lists various emergency and service numbers.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s editorial and circulation departments.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